

누리호에 정치를 묻다

홍익칼럼



김병구
경북본사장

지난 21일 '우주까지 새 세상을 개척할' 한국형 로켓 '누리호'가 불꽃을 뿜으며 힘차게 날아올랐다. 짜릿한 감동 그 자체였다. 비록 더미 위성(모사체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는 데는 실패했지만, 목표 고도인 700km까지 전 비행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절반의 성공이었다.

누리호 개발은 정부 예산 2조 원이 투입돼 12년간 수많은 연구원과 엔지니어들이 쏟아부은 피와 땀의 결실이다.

2013년 쏘아 올린 나로호가 러시아 기술을 빌린 것이라면 누리호는 설계, 제작, 발사까지 순수한 한국 독자 기술의 산물이란 점에서 의미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누리호 발사는 국내 기업 300여 곳과 항공우주연구원의 인력이 부품 약 37만 개를 제작 조립해 작동시키는 기술을 원팀으로 협력해 적용한 합작품

이라는 데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단 하나의 부품이라도, 단 한 명의 인력이라도 허점이 있거나 실수를 하면 폭발이나 추락 등으로 로켓 발사가 불가능했던 것이다. 이 같은 상생 협력 모델이 머지않아 한국을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우뚝 세울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도 좋을 성싶다.

우주과학 분야의 이런 눈부신 성장이 큰 기대를 안겨 주고 있는 반면 정치 분야는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 주고 있어 개탄스럽다. 지금의 우리 정치는 발전은커녕 퇴보만 거듭하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의 수많은 기업과 인력은 누리호의 완벽한 작동을 위해 기술 개발에 머리를 맞대면서 상생 협력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처럼 우리 과학인들이 누리호를 중심으로 원원 계임에 혼신을 바치고 있는 가운데 정치인들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오징어게임에만 빠져 허덕이고 있다.

여야를 떠나 상당수 대선 후보들은 '내가 정권을 잡으면 상대 후보를 감옥 보내겠다' '구속시키겠다' 등의 말을 서슴치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을 잡지 못하면 끝나의 죽음, 우리 진영의 죽음이란 인식이 팽배해질 수밖에 없을 지경이다.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오징어게임과 별반 다르지 않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아니런 말과'

식의 무차별적인 폭로를 남발해 국민들의 인식이나 판단도 흐리고 있다. '일베' '조폭' '소시오패스' '국민들이개' 등등 저속하고 거친 표현과 비유가 난무하면서 정책 대결은 실종되고 막장 드라마만 연출되고 있다.

여야 대다수 후보들은 국가의 미래를 향한 비전이나 정책은 내놓지 않고, 상대의 과거 행적을 캐내고 의혹을 부풀리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 중앙과 지방의 양극화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극복, 국민들의 편안한 삶에는 안중에도 없고 제로섬 게임에만 열중하고 있는 정치권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지금의 정치 행태를 보면 여야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어떻게 하면 지방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리고, 어떻게 하면 한반도 통일의 물꼬를 틀 것인지 등에 대한 정책 대결과 경쟁에 앞다투어 나설 것이라는 기대는 아예 접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서글픈 심정이 앞선다. 정당의 궁극적 목표는 정권 획득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정권 획득도 국민 화합과 행복이란 가치를 외면한 채 상대 진영의 몰락만을 겨냥한 결과물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누리호는 미래를 향해 힘차게 질주하는데, 우리 정치는 과거로 퇴행하고 있는 꼴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정치권은 '나만 잘 살면 되는' 오징어게임이 판치는 나라를 원하는지 모르겠다.

사설社說

수사 검사도 '특검하자'는 '대장동 사건' 꼬리 자르기 수사

검찰이 대장동 특혜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뺀 데 따른 후폭풍이 매섭게 몰아치고 있다. 법조계는 물론 수사팀 내부에서도 "이런 식의 수사가 계속되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자조(自嘲)가 나온다고 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장동 특혜사건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소수의 민간사업에 넘겨 성남시와 성남 시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배임'이기 때문이다.

이를 실행한 인물이 유 씨이고 사업 방식을 그렇게 설계한 최종 책임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이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모른다'고 강변하지만 수궁하기 어렵다. 시장이 최종 결재권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지사도 '배임' 혐의를 면하기 어렵다. 검찰이 유 씨의 배임 혐의를 뺀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유 씨의 배임 책임을 묻지 않으면 이 지사도 배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는 검찰의 수사가 '이재명 구하기'로 '설계 뺏음을 뜻

한다. 검찰의 부실 수사는 이를 잘 뒷받침한다. 유 씨 오피스텔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 유 씨의 장시간 면담과 유 씨 휴대전화 미확인, 성남시청에 대한 녹장 압수수색, 김민배 씨 영장 부실 기재는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고했다.

예고대로였다. 수사팀은 유 씨를 기소하기 전날 막바지 수사를 하면서 유 씨에게 배임 혐의에 대한 질문은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민간업자의 '초과 수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경우에 대해서도 유 씨를 상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천대우 등이 1천150배가 넘는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누가 최종 결정했는지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검찰의 수사는 이를 수사하지 않겠다는 소리다.

이 때문에 검찰이 사건의 성격을 이 지사가 책임져야 할 수도 있는 '배임' 사건을 유동규·김민배·남욱 등이 공모한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으로 변질·축소시킬 것이라 소리가 공공연히 나온다. 괜한 의심이 아니다.

"신한올 3·4호기 건설 재개" 탈원전 정책 비판한 한수원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신한올 3·4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재개돼 (원전 생태계) 숨통을 틔웠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전 없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정 사장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원자력은 탄소중립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한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집행해 온 기업이다. 더군다나 정 사장은 탈원전 일환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이뤄진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사다. 탈원전 참병인 정 사장이 신한올 3·4호기 공사 재개 당위성을 천명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원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개인적인 바람이란 단서가 붙고 표현이 완곡했지만 탈원전 집행 공기업 사장이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기를 든 것과 마찬가지로.

7천900억 원이 투입된 신한올 3·4호기는 탈원전으로 난

데없이 공사가 중단됐다. 경북도는 신한올 3·4호기 건설이 취소되면 60년간 지역내총생산(GRDP) 기준 19조5천억원, 세수와 각종 법정 지원금 2조5천억원 등 20조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장 인력 수천 명이 떠나 신한올 3·4호기 인근 원룸과 주택의 대량 공실, 식당 폐업 등 주민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수원 수장으로서는 공사 중단 폐해를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정 사장이 건설 재개 소신을 밝힌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 사장 발언으로 탈원전 허구성과 폐해가 또다시 드러났다. 원전 생태계 유지를 위해 신한올 3·4호기만이라도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쏟아지는데도 문 정부는 고집을 부리고 있다. 2023년 말까지 공사 계획 인가를 연장하는 식으로 다음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꼼수까지 부렸다. 오죽하면 탈원전 선봉에 서왔던 한수원 사장이 건설 재개 소신을 밝혔겠나. 이제라도 문 정부는 신한올 3·4호기 공사를 재개하고, 망국적인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대구 미군기지 반환 부지 활용, 시간 걸려도 서둘러 말라

지난해 12월 반환이 결정된 대구 남구 미군기지 캠프워커 내 헬기장 부지와 활주로 부지의 활용에 앞서 해결해야 할 오염된 토양 정화 등을 둘러싼 문제로 대구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1959년 미군 주둔 이후 미군 부대 주둔의 낙후된 남구는 물론, 대구의 앞날을 바꿀 새로운 개발의 밑그림 완성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져서다.

무엇보다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의 정화가 발등의 불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반환에 앞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실시한 미군기지 내 헬기장 및 활주로 부지 토양과 지하수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1급 발암 물질인 비소의 최대 농도는 기준치의 15배였다. 폐쇄도 지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등 심각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사실이 밝혀졌다. 게다가 역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부대 내 여러 건물 안팎에서 검출됐다.

60년 넘는 오랜 세월을 걸친 이런 오염의 정화는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다. 이는 강원도 춘천의 한 미군 부대 사

레가 잘 말해준다. 해당 부대는 지난 2007년 반환된 이후 국방부가 3년 동안 180억 원을 투입, 환경정화 사업을 거쳤지만 지난해 공인 개발 과정에서 토양의 기준치 이상 오염 사실이 다시 밝혀졌다. 대구 캠프워커 경우, 지난 7월부터 시작된 한국환경공단의 토양과 지하수 오염 추가 조사에서 중전 오염 면적 외에 상당한 토양 오염 사실이 새로 드러나 오염 문제가 심각치 않음을 드러냈다.

따라서 대구시의 신중한 행정이 필요하다. 대구시는 반환 부지에 대구의 대표도시권 건립과 평화공원 및 3차 순환선 연결 왕복 8차로 건설 등의 청사진을 이미 내놓았다. 그런 만큼 대구의 앞날 모습을 크게 바꿀 개발 일정을 서두르고 싶은 것이다. 그렇더라도 지금까지 드러난 오염과 정화 문제를 소홀히 다루서는 안 된다. 게다가 반환 부지의 부실 정화 등을 막기 위해 대구시가 꾸린 토양조사자문위원회조차 최근 추가 보완 조사 필요성을 주문했지 않은가. 대구시는 이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야고부 野鼓賦

대선이 치열해지면 서 '설화'(舌禍)가 잇따르고 있다. 그중에는 실제로 잘못해서 화를 입는 경우도 있고, '설화'가 될 일이 아님에도 설화로 비화되는 경우도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달 안동대 학생들과 대화에서 '정규직 비정규직이 다 똑같은 거 아니냐고 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그의 발언은 '정규직 비정규직 따지지 말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한다'는 거였다. 앞뒤 다 떼어내고, 공격함으로써 청년들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인물로 비치도록 한 것이다. '부정직품 논란'도 똑같은 방식으로 왜곡됐다.

최근에는 '전두환 옹호' 논란으로 여당은 물론, 같은 당 경선 후보들로부터도 맹비난을 받았다. 부산 당원 간담회에서 윤 후보는 "전두환 전 대

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며 "군에 있으면서 조직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웬만한 건 다 넘겼다고 한다. 그렇게 맡겼기 때문에 잘 돌아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 전문가라도 경제를 다 모른다. 금융·예산 등 다 그 분야

정치권에서는 윤 후보가 '정치 문법'에 완벽히 적응하지 못해 실수하고 있으나 차츰 나아질 것이라고들 한다. 윤 후보든 누구든 매사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는 데 이견을 가질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윤 후보가 '정치 문법'에 익숙해지는 문제와는 별개로, 타인의 말을 일부만 똑 잘라 뜻을 취하고, 왜곡해 해석하는 우리 사회의 습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단장취의(斷章取義)라는 말이 있다. 다른 사람의 글이나 말의 일부만 떼어서 전체 맥락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쓰는 것'을 말한다. 중국 춘추전국시대(기원전 8~3세기)에 나온 말이니 남의 말을 잘라 왜곡하는 습성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닌 모양이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해서 '단장취의'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조두진 논설위원 earful@imaeil.com

윤석열 후보의 말

의 최고 고수들, 사심 없는 사람들을 내세워야 국민에게 제대로 도움을 드리는 것이다. 출신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최고 전문가들을 뽑아 일을 맡기고 저는 국민과 소통하고 행거야 할 어젠다만 챙기겠다"고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인용할 필요도 없었지만 맥락을 보면 '전두환 옹호'라고 보기도 어렵다.

울릉도 크루즈여행

특급 초대형 크루즈 2만톤급 1,200명탑승!
이젠~~멀미 걱정도~ 곁항·못나오는 걱정도~
완전이 말끔이 사라진 쾌적한 여행입니다.
꼭찬 하루반나절로 완전여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울릉도의 진정한 10대비경만을 진행합니다 ■독도 ■성인봉 ■대포강 ■나리분지 ■망향봉 케이블카 ■죽도 ■관음도 ■성불사 ■예림원 ■행남등대해안길

매주 금요일 출발 (불금엔 울릉도간다) : 19:00 칠곡동천소방서앞 19:30 성서홈플러스건너정류장 19:40 반월당 동아건너 농협앞 19:50 법원앞 20:00 동구청역2번출구

금요일	크루즈 4인실/6인실 침대칸 밤11시~새벽6시 울릉도착 (편안한밤) 편의점,노래방,레스토랑 각종 편의시설 완비,멋진 추억 저축해놓기에 가성비 최고의 여행,호도여행,가족여행,단체여행 최곱니다.
토요일	오전: 사동-태하등대-대포강-울릉호박엿 공장견학-성불사-예림원-나리분지-관음도-망향봉케이블카 오후: 독도 ₩55,000 죽도₩25,000 성인봉 무료 자유선택여행 (조식/중식제공/석식 자유맛집별식)
일요일	아침 조식후 행남등곶길 (2.6km2시간소요) 11:00 울릉출발, 12:00 코루스전상 중식, 17:30 영일만도착, 19:00 대구도착 (조식/선상레스토랑 중식 제공) 타여행사와 꼭 반드시 비교해보세요.

▶크루즈 1박(공동 6인실 침대) ▶울릉 1박2인1실:₩319,000 3인1실:₩314,000 4~5인실:₩309,000 단체10인이상 (2인실기준) 300,000 대구-포항왕복버스 20,000/크루즈 중식 10,000/여행지입장료 21,500 포함

위드코로나 시국에 딱 맞는 청정 여행지입니다 ♥12월31일 선상해맞이 및 성인봉 눈산행 참가자 100명 모집

● 울릉도10대비경 크루즈여행 매주 금 밤8시 성서홈플러스건너편 출발 ● 제주도 365일 매일출발 ● 백령도·홍도·거문도 10명이상 항시출발

대진고속관광 · 대구힐링여행사 · 24시상담 010-2550-9393 · 562-3113

찾아 오시는길
달서구 구마로 176
청구그린맨션상가1층